

석사학위논문

<차사본풀이> 연구

지도교수 : 현 승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장 희 철

2004년 8월

<차사본풀이> 연구

지도교수 : 현 승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장 희 철

장희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문초록>

<차사본풀이> 연구

장 희 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는 문학으로서의 본풀이가 아니라 의례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제주도민들이 <차사본풀이>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를 민속현상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문학으로서 차사본풀이를 분석하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집된 많은 이본들을 대상으로 원형을 추정한 다음, <차사본풀이>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그 의미를 상례(喪禮)와 관련지으며 논의하였다.

<안사인>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7편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차사본풀이>의 원형을 추정하였다. 7편의 이본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락은 19개이지만, s와 t는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단락이므로 이 둘을 포함하여 21개의 단락을 추출하였다. 이 21개의 기본 단락과 일치하는 서사 구조를 지닌 것이 원형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순차적 방법에 의해 <차사본풀이>를 단락별로 나눈 바, 스토리로 구성된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전반부는 이승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일과, 그로 인한 죄값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속의 세계의 사건을 서술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생사의 자연현상을 지상의 강림이 해결해 준 내력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

분으로, 차사본풀이의 중심 내용이다.

전반부는 동경국 3형제의 성속(聖俗)의 공간이동을 통해 악(惡)의 세계로 표상되는 과양땅에서의 1차 죽음과 꽃으로의 환생, 다시 과양땅에서 과양생이 3형제로 출생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2차 출생과 죽음의 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후반부는 강림의 저승 여행을 통해 과양땅에 오게 된 염라대왕은 지상의 악(과양생이 처를 죽이고 모기와 각다귀로 환생시킴)을 응징하고, 이승의 자연질서(삶과 죽음)와 인문질서(죄와 벌)를 바로 잡는 역할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 분리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생사의 문제는 염라대왕의 뜻에 따른다는 정명관을 보여주고, 아울러 염라대왕이 자기 대신 강림을 이승에 보냄으로써 그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차사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도 상례 절차와 <차사본풀이>의 관계를 들어 신화와 의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상례 절차는 망인의 영혼이 상제의 도움을 받으며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의례적 표현이었고, 차사본풀이는 그러한 의례를 담당하는 차사인 강림이 저승 염라왕을 대신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래담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신화와 의례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상례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가 형성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원형추정과 해석	7
1. 이본 비교	8
2. 서사적 맥락	22
III. 구조와 의미	25
1. 구조	25
2. 의미	35
IV. 차사본풀이와 상례(喪禮)	39
1. 신화선행설과 의례선행설	39
2. 차사본풀이와 상례	41
V. 결 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4

I. 서론

1. 연구 목적

사람이 죽으면 ‘타계한다’고 한다. 이는 다른 세계로 간다는 말이다. 이때 다른 세계인 타계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3생이라 하여 태어나기 이전을 전생, 현재의 세상을 금생, 죽은 후의 세상을 후생 또는 내세라 한다. 이는 불교의 세계관이지만 민간에서도 이러한 관념은 있다. 즉 민간에서도 꼭 같이 내세라 부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승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저승과 내세를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제2의 세계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세 이외의 타계를 상정함은 세계적이라 할 만하다. 이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다. 그러한 사유가 자연 현상에 대한 해명, 유래담, 근거 제시를 위한 이야기 등으로 만들어지고 구비전승되면서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남게 된다.

제주도 사람들도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한반도, 중국, 일본을 사이에 둔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3개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3개국의 위협 속에 생존해야 하는 난관에 처하기 한다. 게다가 척박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도민이 살기에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옛 문헌을 통해 보더라도 제주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를 3災라 하여¹⁾ 수재, 한재, 풍재를 말한다. 5월 장마철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고, 여름에 한달쯤 비가 아니 오면 한발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을철에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1) 山高深谷水災, 石多薄土旱災, 四面大海風災

된다고 하여 지칭한 말이다. 농사를 지어 살아야 하는 제주민에게 이 3재는 곧 죽음과 다름없었다. 3재가 닥치면 제주는 흉년이므로 제주의 목민관은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백성들을 위해 조정에 알려 구호식량을 요구했다.

이같이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민들은 인간의 생사문제의 원리를 신이 담당한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유래담을 창조해 냈는데 그것이 차사본풀이다.

차사본풀이는 제주도 큰곳의 여섯 번째 제차인 시왕맞이에서 불려지는 신화이다. 시왕맞이는 저승에 있는 여러 왕들과 사자(死者)를 저승까지 데려갈 차사를 불러 모시고 행하는 곳으로서 인간이 사후에 저승까지 편안히 가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현세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므로 저세상에 가서나마 편안하게 망자를 모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의례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생사관과 타계관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 의례에서 불려지는 본풀이로서, 그 내용은 평범한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저승차사가 된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이며,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림차사에게 죽은 인간의 영혼을 고이 저승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주도 큰곳에서는 12개의 본풀이가 노래불려지는데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차사본풀이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화되어 있어 단일주제로 드러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본론에서 설명하겠지만 차사본풀이는 크게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전설과 민담 요소들이 차용되어 복잡한 해석이 가해진다. 게다가 오늘날까지 상례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그 절차와 신앙의식이 차사본풀이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본풀이를 해명하는데 문학적 해명만이 아니라 의례를 통한 복합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교식 장례의례를 치르고 다시 집에 와서 귀양풀이라는 무속의례를 하는 제주도의 현재 상황은 차사본풀이를 해명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은 문

학으로서의 본풀이가 아니라 의례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제주도민들이 차사본풀이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를 민속현상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제주도에서 사람이 죽으면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도 무속식으로 행하는 의례가 2가지 있다. 하나는 시신을 매장하고 집에 돌아와서 행하는 귀양풀이이고 또 하나는 대상 후에 하는 시왕맞이이다.

귀양풀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을 향해 떠나기 전에 이승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이별인사를 하고, 더불어 고인의 망령을 위무하고 좋은 곳으로 천도를 바라며 후한이 없도록 기원하는 곳이다. 제의의 진행 순서는 초감제, 하정(죽은 원인을 말하고 차사를 청함), 차사본풀이, 도수김(16차사와 고인에게 돌아갈 때를 알려주고 차사에게 소지를 올리며 고인을 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3년상을 넘길 때까지 고인의 집안을 다시는 해치지 말아달라는 축원을 한다.), 도진(16차사와 망인을 회송시키고 살풀이를 한다. 살풀이는 축사의례로 심방이 콩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뿌리고, 고인의 옷과 쓰던 물건들을 태운다.)²⁾

이별의례에서 차사본풀이를 창하며 저승차사에게 고인을 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점에서 의례와 관련지어야 함을 보인다.

시왕맞이는 먼저 택일을 하고 심방에게 의례집행을 요청한 후 제물, 폐백 등을 준비한다. 제일이 되면 심방들은 무악기와 무점구의 하나인 신칼과 산판 등을 들고 와서 기메를 제작하고 제상을 배설하여 곳을 한다. 곳의 내용은 질침, 차사본풀이, 액막이, 나까도전침, 삼천군병질침 등의 여러 가지 제차가 끼어 있어 다른 맞이곳에 비해 복잡하지만 원리는 같다.³⁾ 저승을 차지하는 시왕을 불러들여 기원하는 의례로 2가지 경우에 행한다. 하나는 집안에 중환자가 있을 때 시왕이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린 병이라 해석하고, 이 질병을 거두고 정명을 늘려 주십사고 기원하는 경

2)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3)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우이다. 다른 하나는 사망 후 사령의 생시 죄보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주십시오 기원하는 것이다. 만일 사령이 저승으로 못 가서 중간에 헤매게 되면 그 사령은 잡귀가 되어 가족 또는 친지에게 병의하여 질병이나 재해를 주어 괴롭힌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시왕맞이는 건강과 질병 치료를 통하여 장수를 누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승으로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에게 데려가지 말고 정명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역시 차사본풀이를 노래하게 된다.

이상에서 차사본풀이는 상례 의례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은 굿 자체에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굿의 사회학적 방법, 문화인류학적 방법, 민속학적 방법 등에 따른 연구 성과들이 있었고, 이러한 업적이 쌓이면서 본풀이가 다수 수집되어 본풀이를 문학작품으로 보려는 연구경향이 나타났다. 김화경은 “차사본풀이 구조 연구”에서 차사본풀이를 병립적 구조로 파악하여 통과의례 양식인 ‘분리-과도(전이)-통합’ 의례로 나누어 의미를 살핀 후, 의례가 선행하여 존재한 다음 본풀이가 불려졌다고 말하였다.⁴⁾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선후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다음으로 김현선은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에서 <바리공주>가 행해지는 굿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여성신화적 성격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서울 진오귀굿의 밖굿과 제주도의 시왕맞이가 신격이나 절차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본풀이 측면에서 바리공주본풀이가 시왕맞이에서는 독자적인 체사본·스만이본·지장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차사와 사만이, 그리고 지장아기의 이야기가 제주에서는 독자적인 본풀이로 창안되었지만 진오귀굿의 밖굿에서는 바리공주본풀이 하나로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놀이의 측면에서 재담과 놀이를 섞어서 풍부하게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진오귀굿의 밖굿 사재삼성 놀이와 시왕맞이에서 석살림을 노는 것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맞이의 측면에서 이승과 저승의 공간 관념이 복합되어 있고 두 가지 공간에서 각기 맞이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인데,

4) 김화경, “차사 본풀이 구조의 분석”, 『인문연구』 1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제주에서는 방광침을 해서 시왕을 맞이하고, 영개질침을 해서 저승의 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절차가 진오귀곳의 밖곳에서는 뜯대왕과 도령돌기로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⁵⁾ 서울의 진오귀곳의 밖곳과 시왕맞이 의례가 일치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제주도 무속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본풀이 자체를 문학작품만이 아닌 의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전승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민속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문학으로서 차사본풀이를 분석한다. 언어와 행동과 음악을 종합하여 전승시켜 오던 원시종합예술이 오늘날 낯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언어로 되어 있는 신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고대인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집된 많은 이본들을 대상으로 기본형을 선정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수집된 차사본풀이가 다양한데 지역마다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사할 경우 일반신본풀이로서의 차사본풀이가 갖는 위상이 공통성이라는 점에서 제주도민 전체의 생각이고 사유체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형을 대상으로 구성을 나누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그 의미를 의례와 관련지으며 논의한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기본형을 선정해야 한다.

설화 연구의 많은 방법 중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설화의 전파를 중요시하면서 구승에 의한 전파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어떤 한 유형의 설화를 택해 가능한 모든 구승 및 문헌상 유향을 수집하고, 그것을 특징에 따라 분석하여 공통적 특징을 추출, 원형이란 것을 추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것은 설화가 전승자의 창의성이 무시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원형의 재구가 무리이고 원형이 가장 완전하리라는 생각은 퇴화를 전제한 잘못된 가정이라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화의 원형을 찾고 그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유용한 방법이고, 설화의 원형을 찾는 것은 설화 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⁶⁾

5) 김현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세계의 여신신화』, 종교문제연구소 제12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6)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2. pp.10-11.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차사본풀이>의 원형을 추정하여 이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7편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원형을 추정한다.

Ⅲ장에서는 <차사본풀이>의 구조를 순차적 방법에 의해 두 개의 구조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출한다.

Ⅳ장에서는 상례와 차사본풀이의 관계를 살피고

Ⅴ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이상의 논의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赤松智城·秋葉隆, 『朝鮮 巫俗의 研究』, 新韓書林, 1937. <박봉춘 구연>
- ②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안사인 구연>
- ③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출판사, 2001. <고대중 구연>
- ④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이영주 구연>
- 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김해춘 구연>
- ⑥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이정자 구연>
- ⑦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김창인 구연>7)

7) 앞으로 이 자료를 언급할 때에는, 구연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약칭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안사인 구연>’인 경우 <안사인>으로 한다.

Ⅱ. 원형추정과 해석

설화 연구의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인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설화의 시원에 관심을 두어 설화는 유형마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구술에 의한 전파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어떤 한 유형의 설화를 택해 가능한 모든 구술 및 문헌상 유화를 수집하고, 그것을 특징에 따라 분석하여 공통적 특징을 추출하여 원형을 추정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사유나 공상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로부터 설화의 각 유화(類話)를 비교하고 원형을 찾는 것은 설화 연구의 기초이다. 따라서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설화의 원형을 찾고 그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아주 넓은 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설화가 전승하고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아래자설화는 광포설화인데 유사한 내용이 한국의 남부와 북부, 일본 나아가서 시베리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럴 때 그 원류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시베리아인가를 추정할 때 유사 모티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차사본풀이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와 함경도의 '짐가제긋'이 있다. 이 둘은 등장인물의 명칭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서사무가가 제주도와 함경도에서 공통으로 전승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를 끄는 일이나 이 글에서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차사본풀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아직 짐가제긋 자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확장하는데 난점이 있어 제주도의 자료로 한정한다.

그럴 경우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가. 딱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방법론은 제주에 한정시키는 경우라도 도움은 준다.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신화가 수집된다면 어느 지역의 자료가 가장 원형에 가까울 것인가

를 추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차사본풀이는 큰곳에서 노래로 불려지는 본풀이로 지역마다 특징을 갖는 당본풀이와는 달리 일반신본풀이로서의 차사본풀이는 거의 같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집 제시한 7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화소의 유무(有無)에 따라 내용 단락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안사인본>이 가장 잘 짜여져 있어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게다가 다른 이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풀이의 전형적인 표현양식인 공식구의 사용이 인물 묘사에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 외에 대정현, 정의현보다 제주목이 중심지였으며 그 자료가 가장 활발히 변화하며 전승되었으리라는 점도 고려대상에 넣었다.

1. 이본 비교

우선 기본 텍스트인 <안사인>을 사건 진행 순서와 내용에 따라 24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누고 이 단락들을 중심으로 이본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내용단락은 'a·b·c...'로 나타내어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이본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과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본을 밝혀 그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사 맥락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단락도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a. 동개남은은중절 대사(大師)가 유언을 남김

이 단락은 동개남은은중절 대사(大師)가 소사중(小師僧)에게, 동경국 버무왕 3형제의 정명이 15세를 넘기지 못하니 법당(法堂)에 데려와 법당공양(法堂供養)하게 하여 그들의 명과 복을 이어주라고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다. <김창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변이되어 나타난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유언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김창인>에서는 꿈의 형태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박봉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암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락이 없어도 내용 전개상 무리가 없다.

b.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 3형제의 정명(定命)이 짧음

이 단락은 고귀한 신분의 아들 3형제가 있는데, 정명이 짧다는 내용이다. 이본에 따라 3형제의 신분은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 동경국 버물왕의 아들, 동경국 버물왕의 아들, 동경국 범으왕의 아들, 범을황제의 아들, 하늘옥황 버물왕의 아들 등으로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귀한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형제의 정명이 짧다는 이야기를 중으로부터 듣는데, <박봉춘>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서는 정명이 15세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봉춘>에서는 ‘단지 단명(短命)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온다.

c. 정명(定命) 연장을 위한 방법 들음

이 단락은 정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듣는 내용이다. 정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① 과연 애기씨들 귀하옵기는 하오나 열 두 번 죽어도 환생을 하옵서나 은물장사, 늦기장사, 비단장사나하야 인간에 나아가서 고생이나 하오면 장명하오려니와 그러치 아니하오면 단명가겠습니다. <박봉춘>
- ② 돈도 말랑 내여농곡 금도 말랑 내여농곡 늦기집도 내여농곡 은기집도 출려농곡, 짐 석짐을 출령 아들 시성제에 내여농왕 팔도구갑을 시김서, 팔도구갑시경 돌아올 땐 우리 절에 오랑 연삼년을 공빌 시김시민 곳인 수년은 넘어강 멩이 질 듯 흐우다. <김해춘>
- ③ “우리 절간이 영급하고 화련하니 수록이나 들여봅서.” <이영주>
- ④ “중의 행착 출려근 시군문에 노념시겨 보양 중의 행착 완연호건 이 아기털 드라다근 멩도 잇어줍서, 복도 잇어줍서.” <김창인>

⑤ 『이 아이털 식성제가 중이 행착 출려아정 우리 범당에 오랑 연삼년 범당 공양허염시민 멩과 복이 잇어질 듯허읍네다.』 <안사인>

⑥ 우리 절간 범당에 이 아기털 보넵서. 우리 절간 안에서 열다섯만 넘으면 이 아기털 멩과 복을 잇어줄 듯 허읍네다. <이정자>

⑦ 『우리 범당에 오란 소서로 거영해영 열다섯 십오세를 넘겼으면 멩도 장단혈 듯 합니다.』 <고대중>

①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고생해야, ②에서는 팔도유람과 절간에서 3년간 공부를 해야, ③~⑦에서는 절간에 들어가 중이 되거나 혹은 절간수륙, 범당 공양해야, 정명이 연장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집을 떠나 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명 연장의 방법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는 불력으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전승민들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김해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아랫녁히 과양선이 집이랑 강 밤을 자지 말곡 밥도 먹지 말아시민 멩이 질 듯 허우다” <김해춘>

e에서 3년 간의 범당공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3형제에게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똑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d. 정명 연장을 위해 집을 떠남

이 단락은 3형제가 정명을 연장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부분이다. <김해춘>에서는 이 부분 다음에 다른 이본들에 없는 내용이 첨가돼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형제가 집을 떠나 팔도유람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쉽들에 앉아 숙식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빨래하러 왔던 과양선이 부인이 3형제가 팔도구경을 하게 된 연유와 오늘 숙식 걱정하는 것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과양선이 집으로

간 3형제는 저녁밥을 잘 얻어먹고 자기집 수양아들이 되어 장사하면서 끼니는 집에 와서 먹으라는 과양선이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길을 떠났다.

다른 이본에서는 3형제가 집을 떠나 절로 이동하는 경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김해춘>에서는 ‘팔도구경을 하다 과양땅을 거쳐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 첨가돼 있다. 이는 3형제가 절로 가는 중간 이동 경로에 과양땅이라는 배경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과양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e.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음

이 단락은 출가 중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으로서 금기(禁忌)를 제시하고 있다. <박봉춘>과 <김해춘>에서는 집을 떠나기 전 정명 연장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의 내용이 나타난다. 순서상 3번째 단락 앞에 제시되고 있다.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3형제가 정명 연장을 위한 고행 중에 부모님이 그리워 귀가하게 되는데, 귀가 도중 과양땅을 조심해서 지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박봉춘>·<고대중>·<김해춘>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구체적인 데 비해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단지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내용만 제시되고 있다.

“장사치로 나아가도 과양생이 집에 드오면 자미 업사오니 들지 아니 하옵이 좃 습니다” <박봉춘>

“가기랑 가라마는 과양땅을 디디면 난디없는 시장기가 날테이니 시장이 날지라도 가름에랑 들지를 말고 지나가라.” <고대중>

“중간이 과양선이 집이랑근 밤도 자지 말곡, 시장혀도 술이영 밥이영 주나때나 먹지 말앙 그냥 나라.” <김해춘>

위에서 보듯이 <박봉춘>에서는 다른 이본들에서 나타나는 ‘과양땅’보다 구체적으로 금기 대상을 ‘과양생이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대중>에서는 과양땅을 지나면

갑자기 시장기가 나는데, 시장기가 나더라도 마을에 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면서 금기 대상과 금기 내용이 <박봉춘>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해춘>에서는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중간에 가다가 과영선이 집에 가서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술도 얻어먹지 말라고 하고 있다. 앞의 이본들에 비해 상세하게 금기의 대상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본들에 비해 <박봉춘>이, <박봉춘>보다는 <김해춘>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전개에 우연성을 배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봉춘>에서는 이 단락이 3번째 단락 다음에 제시되고 있어 단락 배열이 c-e-d의 순서로 되어 있고, <김해춘>에서는 e와 유사한 내용인 e'의 내용이 c 다음에, d와 유사한 내용인 d'가 d 다음에 중복 제시되고 있어 단락 배열의 순서가 c-e'-d-d'-e로 되어 있다. 이처럼 d와 e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e'와 d'를 중복하는 것은 금기가 사건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어김

이 단락은 3형제가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어기는 부분이다. 정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금기 어김 결과에 대한 암시(정명을 연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형제는 금기(禁忌)를 어기게 된다. 금기를 어기는 원인은 과양생이 부인의 재물 욕심 때문이다. 3형제는 길을 가다 시장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양생이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게 되고 그 대가로 3형제는 과양생이 부인에게 비단 세 필을 준다. 비단을 받은 과양생이 부인은 3형제가 가진 재물이 탐이 나 그들을 집안으로 유혹해서 거짓말로 3형제를 속이어 술을 먹게 한다. 술에 취해 잠든 3형제를 죽인 과양생이 부인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게 된다.

g. 3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연못에 던져짐

이 단락은 금기를 어긴 결과로 3형제가 과양생이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연못에 던져진다는 부분이다. 3형제가 죽어서 버려진 곳은 이본들에 따라 명칭이 조금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 <안사인>과 <고대중>에서는 주천강 연내뭇, <박봉춘>에서는 연외뭇, <이영주>에서는 연하뭇, <김해춘>에서는 뒷천당 연하뭇, <김창인>에서는 주천강 연뭇, <이정자>에서는 주천강 연하뭇으로 되어 있는데 연뭇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h. 연뭇에 핀 꽃을 꺾어다가 집에 걸어 놓았는데, 그 꽃을 비벼서 불에 태우니 구슬로 변함

이 단락은 살해된 3형제가 버려진 연뭇에 핀 꽃을 과양생이 부인이 집으로 가져와 걸어 놓았는데, 드나들 때 귀찮게 굴어서 꽃을 비벼 화로에 태우니 구슬로 변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꽃은 3형제가 죽어서 환생한 것이다. 물론 <고대중>을 제외한 다른 이본들에서 문맥상으로 3형제가 죽어서 꽃으로 환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3형제가 꽃으로 환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중>에서는 이 사실이 문맥상에 그대로 나타난다.

3형제가 유왕황제국이 등수를 들어 꽃봉으로 환성이 되어 붉은 고장 노란 고장 검은 고장 삼색백이 고장이 되어 물우이 동굴동굴 피었더라.

위에서 보듯이 꽃이 3형제가 죽어서 환생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은 3형제가 죽어서 꽃으로 환생하고 다시 구슬로 변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i.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임신하여 3형제를 낳음

이 단락은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임신하여 한날 한시에 3형제를 낳는 내용이다. 구슬을 삼키어 임신하고 출산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슬이 잉태, 출산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버무왕 3형제가 꽃으로 환생하여 구슬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꽃도 구슬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꽃이 죽은 3형제의 환생이라면 과양생이 부인의 3형제는 결국 죽은 3형제의 환생이라는 의미가 성립한다.

j. 3형제가 과거를 보러 가서 장원급제하여 돌아옴

이 단락은 3형제가 어릴 때부터 글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15세에 과거를 보러 가서 장원급제하여 집에 돌아오는 부분이다.

k. 집에 돌아온 3형제가 아무런 이유없이 죽음

이 단락은 장원급제한 3형제가 집에 돌아와서 문전에서 절을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죽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3형제가 죽은 나이가 15세인 점이다. 이는 금기를 어긴 결과 15세 정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버무왕 3형제의 환생이 과양생이 3형제이기 때문에 정명이 15세를 넘길 수가 없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과양생이 부인은 3형제의 원인 모를 죽음이 안타깝고 원통할 뿐이다. 자신의 저지른 죄와 그에 따른 3형제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흥미를 더해 준다.

1.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림

이 단락은 3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달라고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리는 부분이다. 모든 이본들에서 소지를 올리는 대상이 공통적으로 김치원님이다. 『增補耽羅誌』에 보면, 김치는 조선 광해군 때 제주판관을 지낸 인물로서 사령 강림(姜林)을 시켜서 저승 관원을 데려다가 한 여인의 신원(伸冤)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⁸⁾

다른 이본들에서는 소지의 내용이 단순히 3형제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이영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과양생이 부인이 김치원님에게 올리는 소지 내용이다.

8) 장주근, 『제주의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출판사, 2001, p.140. 재인용.

그날부터 짐칫골 김치원안티
“저승 염여왕을 잡혀다 줘센”
호로 소지 시번씩 드리는 게
...중 략...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염라대왕을 말하고 있다. 염라대왕은 저승의 왕으로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할 뿐 아니라, 이승에서의 선악을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과양생이 부인은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자신의 3형제가 죽은 원인을 밝혀 달라는 소지를 김치원님에게 올리는 것이다.

m. 소지를 해결할 방도로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하여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저승 본메를 줌

이 단락은 소지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김치원님이 부인의 조언을 듣고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잡아 오라고 명령하면서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저승 본메를 준다는 내용이다.

김치원님이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붙잡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본에 따라 다르다. <안사인>·<박봉춘>·<이영주>·<김해춘>·<고대중>·<이정자>에서는 부인의 조언을 듣고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붙잡아오게 한다. 반면에 <김창인>에서는 자신의 부하(성방, 이방, 불이방, 행이방으로 표현됨)들의 조언을 듣고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조언자가 부인과 부하로 차이가 있다.

염라대왕을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을 부인(혹은 부하)에게 듣는 과정에 <차사본풀이>의 주인공인 강림이란 인물이 처음 언급된다, <김해춘>을 제외한 모든 이본들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강림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김해춘>에서는 ‘강림스제 강파동’이라고 나오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본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주인공 강림이는 김치원님의 수하로서 관직에 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보이는 주인공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강

림이의 능력은 <고대중>과<김해춘>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중>에서는 ‘영리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역력하고 영리한’이라고 나와있다. 주인공 강림이는 18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이본들에 김치원님은 강림이에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저승 본메를 주지만 <고대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다.

n. 강림이 큰부인 집에 들른 후 저승을 향해 떠남

이 단락은 강림이가 염라대왕을 붙잡으러 저승으로 떠나기 전 큰부인 집에 들러 큰부인의 정성으로 저승 행차를 차리고 집을 나선다는 내용이다.

강림이는 저승길에 찾아가는 방도가 없어 막막한데, 큰부인이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여 정성들여 문전신과 조왕신에 제를 올린다. 이를 위해 큰부인은 문전신과 조왕신에 바칠 시루떡 두 개, 강림이 저승길 가면서 먹을 식량 한 개, 총 세 개의 시루떡을 찜는다. <김해춘>에서는 떡과 메를 세 개씩 한다고 나와 있고, <박봉춘>에서는 문전신 대신에 ‘후원에 단을 못고’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뒤에 삼신선이 나타나 강림이의 저승길을 인도하여 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후원에 단을 못고’는 신선에게 제를 지낸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저승을 향해 떠나기 전 강림은 새로 저승 복장을 차려 입고 본메로 귀없는 바늘 한쌍을 받는 내용이 모든 이본들에 나타나는데, <고대중>에서는 본메에 대한 내용이, <박봉춘>에서는 복장과 본메에 관한 내용이 없다.

o.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에 들어섬

이 단락은 집을 떠난 강림이 저승길을 찾지 못하는데 큰부인 집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로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p.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 이른 여덟 험로를 지나감

이 단락은 조왕신의 도움으로 이른 여덟 갈림길까지 도착한 강림이 문전신의 도

움으로 이른 여덟 갈림길을 지나간다는 내용이다. <고대중>에서는 이 부분 또한 조왕신의 도움으로 지나간다고 나와 있다. 앞에서 부인이 문전신에게 제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이본들처럼 이 부분에서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구연자의 착오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박봉춘>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를 지낸 대상이 다른 이본들에서는 문전신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신선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림이는 조왕신이 말한대로 연제못에서 목욕재계하고 떡을 올려 삼신전에 기도하고 있었다. 삼신선이 옥황에서 연제못으로 내려와서 강림이가 기도하는 정성에 감복하였다. 제물을 먹은 후 무슨 일로 이러느냐는 삼신선의 물음에 염라국으로 가는 중이라 말하였다. 강림이가 염라국 가는 길을 알려 달라고 하니, 삼신선이 청풍채, 금풍채, 홍세줄을 주면서 가다 보면 알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강림이가 청풍채와 금풍채를 내던지니 저승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문전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을 지나는데, 여기에서는 신선의 도움으로 저승길을 지나고 있다. 신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도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영주>에서는 o와 p의 내용은 같은데, 길을 안내하는 조왕신과 문전신의 순서가 바뀌어 제시되고 있다. o에서는 문전신의 도움으로 p에서는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을 지나간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다.

q. 이원사제와 사귀어 그의 도움으로 행기못에 빠지니 저승문에 다다름

이 단락은 이원사제의 도움으로 저승에 도착한다는 내용이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저승에 도착한다는 내용은 모든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도착 과정은 이본들마다 차이가 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저승이라고 했을 때 이전 부분에서는 강림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영(靈)과 육(肉)이 결합된 상태로 저승길을 지나왔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저승에 갈 수 없어서 영혼만 저승에

가게 된다.

『삼혼(三魂)을 불러드리건 혼정(魂情)으로나 저승 초군문(初軍門)을 가아봅서
.....』 <안사인>

『너 강림아 속적삼 입었느냐? 염래왕신대 가자시민 검은 머리꺼럭 희도록 가되
염래왕신대렐 못갈테니 속적삼 벗어내라. 혼불러 죽언 혼정(魂情)으로 가서 오라』
<고대중>

아이구 경허건 속작삼이나 벗엉 이레 줘서.
내가 강림이 삼혼(三魂)을 부르건
<이정자>

위 내용에서 이원사자는 혼과 육신이 함께 저승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강림의 속적삼을 벗겨 흔들며 강림이의 이름을 세 번 불러주는 의식(초혼의식)을 행하여 강림이의 혼만 저승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봉춘>·<김해춘>·<김창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사인>에서 강림은 이원사자의 도움으로 저승에 도착하는데, 저승에 도착하기 전 행기못에 빠지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다른 이본들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r.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붙잡음

이 단락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붙잡는 부분이다. 이승의 평범한 존재인 강림이 염라대왕을 잡았다는 것은 강림이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강림은 이러한 신적 능력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염라대왕에 의해 저승차사로 좌정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s. 먼저 가 있으면 뒤따라가겠다는 염라대왕의 말에 이승으로 돌아옴

강림에게 이승에 먼저 가 있으면 곧 뒤따라가겠다는 염라대왕의 말에 강림이가 백강아지를 따라 행기못에 빠지니 이승으로 도착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영주>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김해춘>에서는 백강아지를 따라 빠지는 곳이 행기못이 아니라 서천강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해춘>에서 다음 부분은 저승에서 행기못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경으로 강림이 이원사령에 묻는 내용이다.

나오단 보난 어멍흔 사름이 북을 지우고 뒤티 사두서 떠덩떠덩 두드리는 사름
이 시연, 강림스제 강파도는 염여왕의 영무스령궤라
“저건 어멍흔 사름이우꽈?”
들으난,
“거, 상피엿짓 혼 거여. 건 회성돌리명 놈 본보랭 흐는 거여.”
또 오단 보난 한탈낭 전주웨이 받으로 돌을 지우고 가시 돌은 몽둥이로 태작질
흐는 사름이 시연
“저건 어멍흔 거우꽈?”
“건 도독질 혼 죄를 다시리는 거여.”
또로 오단 보난, 존 안장에 존 밑에 존 의복에 잘 출리고 구중 집행 가는 사름
이 시연,
“저건 어멍흔 사름이우꽈?”
“건, 돈 존 사름이여.”
“옛날 과거, 문과급제흔 사름이여.”
또로 오단 보나나, 짓갓 씨고 춤을 추멍 곳을 흐는 디가 시난,
“저건 어멍흔 거우겐?”
흐난
“저건 인간서 죽는 사름을 살려내는 거난, 화련도모 흐는 거난 저싱 와도 저영
한다.”

위의 내용은 이승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저승에서 벌을 받는 모습으로 다른 이
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t. 이승에 돌아와 큰부인과 상봉하나 감옥에 갇힘

이승에 돌아온 강림이 큰부인 집에 찾아가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본메인 귀없는

바늘을 확인하고 부부간 상봉하나 뒷집 김서방의 밀고로 감옥에 갇히는 부분이다. <박봉춘>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부분은 나오나 큰부인과의 상봉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영주>에서는 t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영주>에서 s와 t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사건 전개가 우연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차사본풀이>의 핵심 내용은 강림이가 저승에 다녀와서 어떻게 차사로 좌정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다. 차사는 이승과 저승을 오고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저승으로 가는 과정 못지 않게 이승으로 돌아오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시왕맛이 의례에서 저승의 왕과 차사를 맞이하는 곳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영주>에서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아마도 구연과정에서 구연자가 원래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 부분을 빠트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u. 염라대왕이 이승에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함

염라대왕은 저승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인간의 생사 여부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에 나타난 염라대왕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u-1 버무왕 3형제를 살려내어 집으로 돌려보냄

염라대왕이 버무왕 3형제를 재생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부분이다.

u-2 과양생이 부부를 죽임

염라대왕이 과양생이 부부를 찢어 죽여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니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기와 각다귀, 그리고 각종 짐승으로 환생시켰다는 내용이다. <박봉춘>·<고대중>·<김해춘>에서는 환생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v. 강림이의 혼을 빼앗아 저승차사로 삼음

이 단락은 염라대왕이 강림이의 혼을 빼앗아 저승으로 데려가 차사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w. 강림과 까마귀 이야기(유래담)

이 단락은 저승차사로 들어선 강림이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적패지를 가지고 이승에 가던 중 적패지를 까마귀에게 맡겼는데, 까마귀가 실수로 그것을 잃어버려 인간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박봉춘>·<이영주>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일종의 삽화 또는 일화로서, 전체 이야기와 중심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삽화(혹은 일화)를 집어넣음으로써 자칫 무거운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분위기 전환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곧 <차사본풀이>의 미학적 구조를 풍부히 해주는데 의미가 있다.⁹⁾

<김창인>에서 이 부분은 s 뒤에 제시되고 있어 순서상 다른 이본들과 차이가 있다.

x. 강림과 동방삭 이야기(공적)

이 단락은 저승차사가 된 강림이 정명을 훨씬 넘긴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온다는 내용이다. 저승차사로서 강림의 공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박봉춘>·<고대중>·<이영주>·<김해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동방삭은 중국 전한(前漢)시대 문인으로서 속설에는 천도 복숭아를 훔쳐 먹어 삼천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중국 한무제 시대의 사람이 이 단락에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전승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동방삭 전설이 본풀이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본풀이가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구연자와 전승민들에 의해 첨가와 생략, 삭제가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이라 여겨진다.

9) 이인제 외, 『현대소설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p.84-85.

2. 서사적 맥락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안사인>의 내용단락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안사인	박봉춘	고대중	이영주	김해춘	김창인	이정자
a	×	a	a	a	a	a
b	b	b	b	b	b	b
c	c	c	c	c	c	c
d	e	d	d	e'	d	d
e	d	e	e	d	e	e
f	f	f	f	d'	f	f
g	g	g	g	e	g	g
h	h	h	h	f	h	h
i	i	i	i	g	i	i
j	j	j	j	h	j	j
k	k	k	k	i	k	k
l	l	l	l	j	l	l
m	m	m	m	k	m	m
n	n	n	n	l	n	n
o	o	o	p	m	o	o
p	p	p	o	n	p	p
q	q	q	q	o	q	q
r	r	r	r	p	r	r
s	s	s	×	q	s	s
t	t	t	×	r	x	t
u	u	u	u	s	t	u
u-1	u-1	u-1	u-1	t	u	u-1
u-2	u-2	u-2	u-2	u	u-1	u-2
v	v	v	v	u-1	u-2	v
w	×	w	×	u-2	v	w
x	×	×	×	v	w	x
				w		
				x		

7편의 이본들을 비교하여 보면, 이 본풀이는 이본들 사이의 차이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개의 내용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탈락된 부분이 있거나 순서 이

동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풀이가 구비 전승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구연과정에서의 구연자의 누락이나 기억상의 혼란과 구연자가 전승민들의 사고와 흥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 단락과 서사적 맥락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각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락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b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 3형제의 정명이 짧음
c	정명 연장을 위한 방법 들음
d	정명 연장을 위해 집을 떠남
e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 들음
f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 어김
g	3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연못에 던져짐
h	연못에 핀 꽃을 꺾어다가 집에 걸어 놓았는데, 그 꽃을 비벼서 불에 태우니 구슬로 변함
i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임신을 하여 3형제를 낳음
j	3형제가 과거를 보러 가서 장원급제하여 돌아옴
k	집에 돌아온 3형제가 아무런 이유없이 죽음
l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림
m	소지를 해결할 방도로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하여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저승 본메를 줌
n	강림이 큰부인 집에 들른 후 저승을 향해 떠남
o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에 들어섬
p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 이른 여덟 험로를 지나감
q	이원사제와 사귀어 그의 도움으로 행기못에 빠지니 저승문에 다다름
r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붙잡음
s	먼저 가 있으면 뒤따라가겠다는 염라대왕의 말에 이승으로 돌아옴
t	이승에 돌아와 큰부인과 상봉하나 감옥에 갇힘
u	염라대왕이 이승에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함
v	강림이의 혼을 빼앗아 저승차사로 삼음

위에 제시한 21개의 단락 중 s와 t를 제외한 19개의 단락은 7편의 이본에 모두 들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락이다. <이영주>에서 s와 t의 생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과정에서 잃어버린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s와 t는 사건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기본적인 단락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차사본풀이>는 21개의 기본 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개의 내용 단락 중 제외된 단락은 a·w·x 이다.

<박봉춘>에서 d와 e의 순서가 바뀐 것은 내용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을 떠나기 전 금기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김해춘>에서 e와 똑같은 내용이 d 앞에, d와 똑같은 내용이 e 앞에 제시되는 것은 금기를 중심으로 과양땅에서 벌어지게 될 앞으로의 커다란 사건을 암시하고 그 사건이 전체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김창인>에서 x단락이 s와 t 사이에 놓인 이유는 단순한 기억상의 혼란이다.

이를 통해 <차사본풀이> 이본들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우선 7편의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단락을 추출하면 'b·c·d·e·f·g·h·i·j·k·l·m·n·o·p·q·r·s·t·u·v'이다. 그러므로 <차사본풀이>의 원형은 이 기본 단락과 일치하는 서사 구조를 지닌 것이 원형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안사인>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7편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차사본풀이>의 원형을 추정하였다. 7편의 이본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락은 19개이지만, s와 t는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단락이므로 이 둘을 포함하여 21개의 단락으로 공통적인 단락을 추출하였다. 이 21개의 기본 단락과 일치하는 서사 구조를 지닌 것이 원형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Ⅲ. 구조와 의미

구조란 이야기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형상을 가리킨다. 즉 전체 이야기 안에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 내적인 체계가 구조인 것이다. 이런 설화의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크게 병립적 연구방법론과 순차적 연구방법론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이야기의 순서를 무시하고 그 속에 내포된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대립을 찾아내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이야기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분편들로 나누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이들과 전체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야기를 직선상의 연속적 구조로 파악하려는 방법이다.¹⁰⁾

차사본풀이는 강림차사가 신격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현대소설과는 달리 시간순서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즉 플롯이 아니라 스토리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차사본풀이를 구조 분석하는데는 순차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1. 구조

1) 내용 요약

차사본풀이 내용은 이본연구에서 자세히 제시한 바대로 다음의 24개의 단락으로 간략하게 나뉜다.

<전반부>

- a. 동개남은은중절 대사(大師)가 유언을 남김
- b.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 3형제의 정명이 짧음,

10)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p.105.

- c. 정명 연장을 위한 방법 들음,
- d. 정명 연장을 위해 집을 떠남,
- e.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음,
- f.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어김,
- g. 3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연못에 던져짐,
- h. 연못에 핀 꽃을 꺾어다가 집에 걸어 놓았는데, 그 꽃을 비벼서 불에 태우니 구슬로 변함.
- l.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임신을 하여 3형제를 낳음,
- j. 3형제가 과거를 보러 가서 장원급제하여 돌아옴,
- k. 집에 돌아온 3형제가 아무런 이유없이 죽음,
- l.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림,

<후반부>

- m. 소지를 해결할 방도로 강림이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하여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저승 본메를 줌,
- n. 강림이 큰부인 집에 들른 후 저승을 향해 떠남,
- o.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에 들어섬,
- p.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 이른 여덟 험로를 지나감 ,
- q. 이원사제와 사귀어 그의 도움으로 행기못에 빠지니 저승문에 다다름,
- r.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붙잡음,
- s. 먼저 가 있으면 뒤따라가겠다는 염라대왕의 말에 이승으로 돌아옴,
- t. 이승에 돌아와 큰부인과 상봉하나 감옥에 갇힘,
- u. 염라대왕이 이승에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함,
- v. 강림이의 혼을 빼앗아 저승차사로 삼음,
- w. 강림이와 까마귀 이야기(유래담)
- x. 강림이와 동방삭 이야기(공적)

이 이야기는 2개의 단계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전반부는 <a-1>까지이고, 후반부는 <m-x>까지이다.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버무왕 3형제는 정명을 연장하기 위해 집(동경국)을 떠나 삼 년 동안 동개남은 은증절에 들어가 범당공양하게 된다. 그러나 삼 년 간의 범당공양을 드리던 중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대사승에게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과양땅을 조심하라고 한다. 3형제는 집(동경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어기고 과양생이 집에 들러 욕심 많은 과양생이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연못에 던져진다. 그 후 3형제는 연못의 꽃으로, 구슬로 환생을 하며 결국은 그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임신을 하여 아들 3형제를 낳는다. 3형제가 성장하여 15세가 되는 해에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錦衣還鄉)하나 문전에서 절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모두 죽고 만다. 과양생이 부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리지만 해결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치원님은 소지를 해결할 인물로 강림이를 지목하여 저승 염라대왕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한다. 강림이는 큰 부인의 정성과 조왕신과 문전신, 이원사자의 도움을 받고 저승 행기못을 거쳐 저승에 당도하여 염라대왕을 붙잡아 이승에 데리고 온다. 염라대왕은 연못에서 버무왕 3형제의 뼈를 찾아 살려내어 그들을 집(동경국)으로 돌려보내고 과양생이 부부는 찢어 죽이어 모기와 각다귀로 환생시킨다. 그리고 김치원님과 내기에서 이긴 염라대왕은 강림이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차사로 삼는다. 저승차사가 된 강림이는 정명인 인간들을 저승으로 불러 들이라는 염라대왕의 분부를 받고 적배지를 갖고 가던 중 까마귀에게 그 적배지를 맡기게 된다. 그러나 까마귀의 실수로 적배지를 잃어버리어 남녀노소 순서없이 죽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강림이는 정명을 훨씬 넘긴 동방삭을 피를 써 잡아옴으로써 염라대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인간차사가 된다.

본풀이의 이름은 강림차사본풀이라 하여 강림이 주인공이며, 그가 신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유래담이라는 뜻인데 실제 신화의 내용에서 전반부에는 강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강림차사본풀이를 강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2개의 다른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함을 말한다.

2) 전반부의 구조

첫 번째 이야기는 동경국에서 살던 버무왕 3형제가 정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개남은은중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동개남은은중절에서 3년 동안의 법당공양을 마칠 무렵, 3형제는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고 싶어 울고 있다가 대사승에게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러자 대사승이 과양땅을 지나 동경국으로 가게 되는데, 과양생이 집을 들르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한다. 어떤 결과가 예시되는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들르지 말라는 금기는 차후에 일어날 커다란 사건의 복선으로 역할을 한다.

이 금기는 3형제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나누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반부 사건의 시작이다.

3형제는 동개남은은중절을 출발하여 과양땅 과양생이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하게 몹시 배가 고파 한 걸음 내디뎠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형국이어서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3형제는 과양생이 집에서 밥을 얻어 먹기로 하고 첫째와 둘째 형님이 차례로 과양생이 집에 들어서나 과양생이 처에게 양반집에 중이 들어선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가서 자신들은 동경국의 아들이고 동개남은은중절에서 명과 복을 이어 오는 길에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여기에 왔다고 말하자 과양생이 처가 개밥그릇에 식은 밥을 물 말아서 준다. 3형제는 밥을 얻어먹은 후 그 댓가로 과양생이 처에게 자신들이 등에 진 명주와 비단을 꺼내어 비단 9자를 끊어 준다. 배고픔 때문에 비록 3형제가 과양생이 집에 들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기로 인한 벌은 무사히 넘어가지 않는다.

3형제가 가진 재물을 보고 욕심 많은 과양생이 처가 그것을 빼앗을 요량으로 오늘은 자기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떠나라고 하여 유혹한다. 사랑방에서 쉬고 있던 3형제에게 과양생이 처가 독한 술과 안주를 차리고 와서, 이 술을 먹으면 명과 복을 이룰 수 있다고 속여 3형제가 술을 마시고 취하게 만든 다음 참기름을 화로불에 줄이어서 그것을 3형제의 귀에 부어 죽이고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탈취한다. 그날 밤

과양생이 부부는 3형제의 시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연못에 던져버린다.

과양생이 집에 들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결과가 3형제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기를 어기는 근본 원인은 재물 욕심이 많은 과양생이 처의 유혹 때문이다. 3형제의 죽음은 전반부의 핵심적인 사건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과양생이 처가 3형제가 죽어서 버려진 연못의 동정을 살피러 가보니 꽃 세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꽃을 꺾어다가 앞문전과 뒷문전, 그리고 생깃밧에 걸어 두었는데, 드나들 때 귀찮게 굴어 행실이 괘씸하다 하여 손바닥에 비비어 화로 숯불에 태워 버린다. 조금 있어 뒷집 할망이 불을 빌러 오자 사랑방 화로에 가서 살펴보라고 한다. 할망이 화로를 보니 불은 없고 3색 구슬만 있다고 말하자 과양생이 처는 자신의 구슬이라고 하여 빼앗아 버린다. 그 구슬을 가지고 입에 물고 이리저리 굴리다가 그만 그것을 삼키게 되어 임신을 하여 아들 3형제를 낳는다.

여기에서 3형제의 죽음은 연못에서 꽃으로, 꽃은 다시 구슬로 변하며 그것을 삼킨 과양생이 처의 3형제 출생으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3형제의 죽음이 사건 전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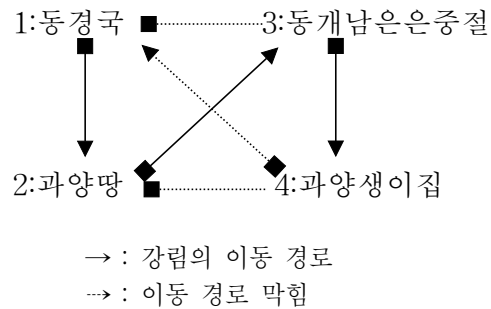
과양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3형제는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15세가 되는 해에 집을 떠나 과거를 보러 가서 장원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 아침 과거깃발이 뜬 것을 본 과양생이 처가 다른 집안의 자식이 장원급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앞에서 세 도막으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3형제가 과거급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나 문전에 돌려 앉혀 절을 하던 3형제가 이유 없이 죽게 된다. 이에 과양생이 처는 자신이 한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죽은 억울함과 분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김치원님에게 하루 세 번 백일 동안 소지를 올리지만 원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자 김치원님에게 욕을 퍼부어대며 원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3형제의 공간 이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경국 → 과양땅 → 동개남은은중절 → 과양땅(과양생이집)

차사본풀이가 신화로 인식되는 한 본풀이 속 인물은 인간의 속성을 지니면서 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그 인물들이 활동하는 신화 속 공간은 신성공간이기도 하지만 세속공간이기도 하다.

3형제의 출생 공간은 동경국으로서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일반 백성들의 거주하는 공간과 대비해 볼 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동경국은 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사승이 사는 동개남은은중절은 과양생이 부부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곳이므로 이를 성의 공간으로 보면, 과양땅은 속의 공간이 된다. 다음은 공간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로 3형제는 성의 공간(3:동개남은은중절)에서 속의 공간(2:과양땅)을 거쳐 성의 공간(1:동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과양땅은 ‘속의 공간’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과양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양생이 처는 부자이면서 남에게 선행을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선 3형제를 시주 받으러 온 중으로 생각하여 하인을 시켜 명석말이 고통을 가한다. 다음으로 3형제가 자신들은 중이 아니라 명과 복을 잇기 위해 동개남은은중절에서 범당공양을 하다가 동경국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과양생이 처는 개밥그릇에 식은 밥을 넣고 물 세 손가락을 말아서 준다.

또한 과양생이 처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인물로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거짓 말로 남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3형제가 밥을 얻어먹은 땃가로 비단 9자를 주자 과양생이 처가 하루 쉬었다가 내일 떠나라고 말하면서 안사랑으로 들어오게 한다. 안사랑으로 들어 온 3형제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며 이 술을 마시면 명과 복을 이어준다 하여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3형제를 죽이고 그들의 가진 재물을 빼앗는다. 그리고 과양생이 처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3형제의 시체를 연못에 버려 유기하기도 한다.

과양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과양생이 3형제가 과거보러 갔다가 과거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자 김치원님에게 그 변고를 알리고 해명해 달라는 것이 중심이다.

과양땅에서 과양생이 아들로 다시 출생한 3형제는 과거를 통해 벼슬하고픈 욕망에 삼천선비와 서울로 갔다. 삼천선비와 같이 과거시험을 치렀지만 중의 자식임이 탄로나 과거 시험 1등이 취소된다. 그러나 상시관은 3형제의 실력이 못내 아쉬워 삼천선비들과 재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삼천선비는 3형제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끝내 1등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귀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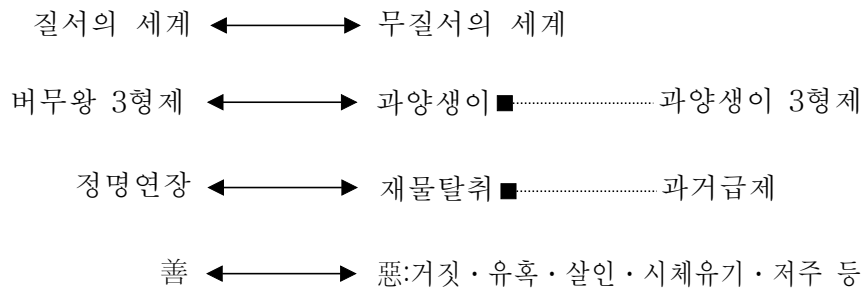
과양땅에서 3형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과양생이 처는 3형제가 1차 시험, 2차 시험을 치르며 늦어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니 부끄러워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멀리서 합격의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주를 내린다. 그런데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려져 죽게 된다.

과거 급제한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3형제가 일시에 태어났다가 일시에 함께 죽으니 과양생이의 마음은 찢어지고 원통하니 그 원인이나 알아야겠다고 김치원님에게 찾아가 원정을 드렸다. 하지만 김치원님은 해결방안이 없다. 고을 원님이 하는 일이 사람의 생사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과양생이는 이러한 관의 무능력함을 질타한다.

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과양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등등 모든 면에서 부당하다. 3형제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3형제에게 술을 먹여 죽이고, 그 시신을 몰래 주천강연못에 버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여 저주를 내리고, 그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관이 백성의 원정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옥을 해대는 등등의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다.

이는 성(聖)의 세계가 아니라 속(俗)의 세계이다. 이는 천지왕본풀이에서 악의 상징인 동생이 통치하는 이승은 불화, 살인, 역적, 도둑, 간통 등이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무질서의 공간으로 반대로 선의 상징인 형이 통치하는 저승은 맑은 법이 지배하는 질서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의 차사본풀이 전승민들은 과양땅을 죄악과 무질서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전반부 논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성(聖)의 세계	동경국→버무왕 3형제 출발→정명연장 목표→동개남은은중절 스님이 해결해 줌
↓	
재생 양식	과양생이에게 죽음→꽃으로 환생→구슬로 변신→속의 세계로 재생
↓	
속(俗)의 세계	과양땅 →과양생이 3형제로 출생→과거급제 목표→관이 해결해 줌.
↓	
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 사망 연유 해결이 문제임.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성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생과 사의 영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연유가 분명하다. 3형제는 과양생이 처에게 살해되지만 과양생이 3형제로 다시 환생하는 부분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과 사의 영역 넘나들이 자유롭다. 그들은 성의 세계에 존재하는 신적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재생 의식을 통해 몇 번이고 생사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양생이 처에게 3형제가 살해되고 버려진 연못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다시 구슬로 변하며,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처가 3형제를 출생한 내용은 버무왕 3형제의 <꽃→구슬→과양생이 3형제>로의 재생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화적 모티프를 수용한 것이다. 재생은 부활(復活)·환생(還生)·환생(幻生)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불사(不死)·생명 연장을 꾀하려는 모든 기도를 뜻한다. 재생양식에 있어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되살아나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고, 환생(還生)과 환생(幻生)은 그 계기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한다.¹¹⁾

죽은 3형제가 버려진 연못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신화적 사고에서 잉태와 출산의 의미를 지니는 꽃으로의 환생(還生)함을 의미한다. 이 꽃이 다시 구슬로 변한다는 것은 구슬을 꽃의 2차적 결실물인 열매로 관념하는 것이고¹²⁾ 그 구슬은 그 속성상 잉태와 출산의 기능이 있는 꽃의 의미를 넘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처가 임신을 하여 3형제를 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에서 재생은 반드시 죽음을 수반하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3형제의 죽음은 재생을 위한 고통의 과정으로서 필연적인 통과의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3형제는 과양생이 처에게 살해되는 1차적 죽음을 맞이하고 <꽃→구슬→3형제>로 이어지는 재생 양식을 통해 과양생이 3형제로의 2차적 탄생을 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전반부 이야기는 이승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일과, 그로 인한 죄값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속의 세계의 사건을 서술한 것이라 할 만하다.

11) 최운식, 『한국설화문학연구』

12) 현승환, “생불꽃연구”, 『백록어문』

3) 후반부의 구조

두 번째 이야기는 김치원님이 강림에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붙잡아오라고 명령하는데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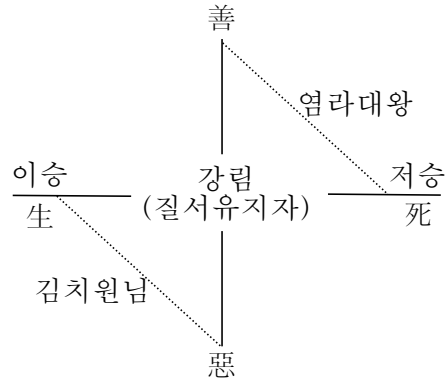
과양생이 3형제 아들이 돌연사를 하자 관에 소청을 들어 그 연유와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김치원님에게 부탁한다. 과양땅의 통치자는 김치원님으로 그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억울함의 문제가 간단치 않다. 과거에 급제하여 귀향 후 문전상에 절을 하는 도중 한 날 한 시에 돌연사를 했으니 커다란 문제이다. 하지만 김치원님의 입장은 사회적 무질서의 문제이거나 인간의 도덕문제 같은 것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생사(生死)의 문제 같은 자연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생사를 담당하는 염라대왕이라야 해결할 수 있다. 염라대왕을 지상으로 모셔와야 과양생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강림이 등장한다. 그는 처와 첩을 합하여 18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똑똑하고 역력한 인물로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김치원님의 계략에 빠져 강림은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가게 된다. 강림은 조강지처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향하고,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가는 문 입구에 도달한다. 그래서 염라대왕을 붙잡아 정해진 날에 김치원님을 만나 난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 받고 돌아온다.

이승에 도착한 염라대왕은 과양생이의 신원을 듣고 잘못된 과양생이에게 있음을 밝히고, 죽은 3형제를 재생시켜 동경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김치원님과 마주하여 답판을 지어, 강림을 차사로 쓰기 위해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

이 과정은 강림이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는 인물로서의 근거를 제시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강림이 전하는 저승 염라대왕의 적패지 명단에 따라 정해진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생사의 자연현상을 지상의 강림이 해결해 준 내력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차사본풀이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2. 의미

차사본풀이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반부는 동경국 버무왕 3형제가 정명연장을 위해 동개남은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다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귀향하는 도중에 과양생이 유혹과 거짓에 속아 죽게 되는데 이것은 1차 탄생과 죽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과양생이는 버무왕 3형제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고 부자가 되었으나, 3형제가 환생한 꽃의 영향으로 잉태를 하여 다시 3형제를 출생한다. 이들 과양생이 3형제는 속세에서 신분상승을 이루기 위해 과거를 치르지만 중의 자식이라는 것이 탄로나 고난을 겪고 끝내는 과거 급제를 이루지만 돌연사를 한다. 이것은 2차 탄생과 죽음이라 할 수 있다.

후반부는 과양생이 3형제의 돌연사를 해결하여 달라고 과양땅의 통치자인 김치원님에게 원정을 올리자 생활의 질서만을 관리하던 김치원님으로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영웅적 인물인 강림을 시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 하여 3형제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염라대왕은 약속대로 과양땅으로 와서 선악의

연유를 확인하고 질서를 잡아준다.

염라대왕의 판결은 지상의 악을 응징(과양생이 부부 죽임, 모기와 각다귀로 환생)하고, 인문질서와 자연질서를(생과 사, 죄와 벌) 확립하는 등의 절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육체와 영혼 분리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타계(他界)관을 보이고 있다. 이승에서의 어려움은 동개남은은중절과 같은 성소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사의 문제와 정명의 문제를 부처님의 공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불교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동개남은은중절에 가서 정성들여 공덕을 들였지만 결국 3형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생사의 문제는 부처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끝내는 저승 염라대왕의 뜻에 따르게 된다는 정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승에서는 인간의 질서 원리를 인간 통치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사와 같은 자연 원리는 저승의 염라대왕 같은 초월적 존재가 관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게다가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자주 올 수 없기에 강림을 보내고 있고, 그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차사임을 근거로 보여주고 있다.

염라대왕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자연질서와 인문질서를 바로 잡히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강림이가 염라대왕을 이승에 데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강림이는 질서 유지자의 위치에 있다.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염라대왕의 몫이지만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강림이의 역할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림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권능은 가지지 못하고 저승과 이승을 오고가면서 이승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차사의 권능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행과정에서는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민속에서 행하는 문전제와 조왕제는 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같은 운명을 관장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주도 심방 말미에 1만 8천신이 있다는 것이 복잡해 가는 인간 생활 속 모든 면에 신이 깃들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유일신 관념이 아니라 다신교적 애니미즘이 현재 제주도

의 신앙관념임을 보여준다.

강림의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여행을 통해서 볼 때, 타계(他界)는 산을 넘고 오래 동안 걸어서 가다가 물을 건너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평적 세계관임을 알게 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저승으로 간다는 것을 염라대왕의 강림의 영혼을 빌어가 저승차사로 임명했다는 것으로 근거 대고 있다. 또 주천강 연못 주위에서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음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객사를 한다든가, 병사를 한다든가, 원한에 사무쳐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죽음인 경우 저승에 가지 못한다는 무속적 관념을 보여준다. 이들 주위 영혼들에게 떡 부스러기를 나눠주고 그것을 먹는 사이에 연못 속으로 빠져 저승으로 간다는 것에서 죽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하지 않으면 조상이 배고파 괴로워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승에서 조상제사에 정성을 들여야 함을 보이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연못 속에 빠져 저승으로 간다는 점에서 타계(他界)를 지하세계로 인식할 수 있으나, 한없이 길을 걷는다던가, 물 속에 빠져야만 도달할 수 있다던가 등의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타계(他界)는 반드시 천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알 수 없는 어느 곳에 있는데 거기는 인간이 걸어서 가는 곳과 같은 곳이라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반영된 곳일 뿐이다. 이는 고구려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수직적 세계관인 천상타계만으로 규정 지워지는 북방계 신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차사본풀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차사본풀이>는 스토리로 구성된 이야기로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

전반부는 이승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일과, 그로 인한 죄값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속의 세계의 사건을 서술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생사의 자연현상을 지상의 강림이 해결해 준 내력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차사본풀이>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전반부는 동경국 3형제의 성속(聖俗)의 공간이동을 통해 악(惡) 세계로 표상되는

과양땅에서의 1차 죽음과 꽃으로 환생한 재생 양식을 통해 다시 과양생이 3형제로 출생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2차 출생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후반부는 지상의 악을 응징하고, 이승의 자연질서와 인문질서가 바로 잡는 역할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 분리의 원리를 보여준 염라대왕의 판결은 생사의 문제는 염라대왕의 뜻에 따른다는 정명관을 보여준다. 또한 염라대왕 대신에 강림을 이승에 보냄으로써 그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차사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강림의 저승 여행 과정에서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을 받아 저승길을 찾아 가는 것을 통해 현재 제주도민의 신앙관념이 유일신 관념이 아니라 다신교적 애니미즘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타계(他界)를 걷고 또 걸어 연못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평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주천강연못 주위에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승에서 조상제사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담고 있다.

IV. 신화와 의례와의 관계

1. 신화선행설과 의례선행설

차사본풀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차사가 저승으로 데려가는 내용을 되어 있다. 이 의례는 귀양풀이와 시왕맞이에서 불려지는데 시왕맞이는 단독제로 행하기도 하고 큰곳에서 행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사람의 생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대 원시종합예술은 언어, 음악, 행동이 통합된 예술이고, 이들은 제천의식에서 행해졌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문학의 기원을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ballad dance설로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결론에 따른 결과이다.

물론 R.G. Moulton은 『문학의 근대적 연구(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에서 “문학형태의 근본적 요소는 ballad dance이다 이것은 운문과 음악의 반주와 무용의 결합인 것이다. 문학이 처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승리했을 때 춤과 노래를 즐긴 것이라든지 다비드왕이 예루살렘 창시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춘 것 등을 발라드 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밝힌 대로 우리 고대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등의 제천의식이 바로 발라드 댄스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동맹을 들어보면, 이것은 10월에 행하던 제천의식이다. 위지(魏志)의 고구려전에 따르면, “왕도 동쪽에 수혈이 있어 10월에 국중대회를 열고 수신(隧神)에게 제사 지내며 목수(木隧)를 신좌로 모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신은 즉 주몽의 어머니로 민족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목수는 나무로 만든 곡식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며, 제의는 오늘날의 당굿과 같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행하는 작은 곳인 비념에서 큰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과 세시풍

속에 따라 행하는 마을굿과 같은 것들이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풍요를 기원하고 감사하는 의례에는 대상신이 있고 그 대상신에게 기원하는 신앙민이 있고, 그를 중재하는 사제자가 있다. 사제자는 신앙민의 뜻을 대상신에게 전하고 대상신의 뜻을 신앙민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가 곧 무당이며 고대 제정일치 시대에는 통치자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한다. 김대문이 “次次雄曰巫也”라 하는 것은 신라의 왕이라는 차차웅, 이사금, 거서간 등이 통치자이면서 천상에 백성의 뜻을 전하는 무당이었음을 말하는 증거이다.

사제는 신을 불러 제장에 앉혀 신앙민의 뜻을 전하고, 즐겁게 하는데 언어와 음악과 춤으로 행한다. 이때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란 스토리를 노래로 대상신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화이다. 차사본풀이도 귀양풀이나 시왕맞이 제차에서 심방이 굿을 의뢰한 의뢰자의 뜻을 신에게 고하는데 특히 강림차사신의 유래담을 노래하는 제차에서 불러지는 신화이다. 이렇게 볼 때 신화와 의례는 같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례와 신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신화선행설이요, 다른 하나는 제의선행설이다. 신화선행설은 신화가 먼저 형성되어 구술되고, 그 내용에 맞춰 의례의 절차가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제의선행설은 제의 절차가 먼저 형성된 후, 그 절차에 따라 대상신과 절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신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결론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다.

아메리카의 민족학자 클라크혼(C.Kluckhohn, 1905-1960)도 신화와 의례와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결정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신화와 의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 즉 서로 공통의 심리학적 기초를 가지고 개인, 가족, 부족의 내외에 있는 긴장과 마찰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 신화와 의례는 매우 친밀하

13) 大林太良, 兒玉仁夫·權泰孝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p.145.

게 결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즉 신화와 의례는 사회의 최종적인 가치태도의 공식화된 연명을 주는 것이기에, 사회의 연대성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통합성을 증진시키며, 또 그 내용을 그다지 잃는 일 없이 문화의 많은 부분을 전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문화의 연속성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 신화와 의례는 사회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동시에 적응이라고 하는 기능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설에 따라 논의하기보다 제주도의 상례의례와 차사본풀이의 관계를 들어 관련성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신화와 의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함은 물론, 신화나 의례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제외되면 그에 따라 다른 요소도 사라지게 됨을 보이려 한다.

2. 차사본풀이와 상례(喪禮)

차사본풀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차사가 저승으로 데려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상례 절차와의 대비를 위해 관련 내용만을 간추려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 3형제가 정명 연장을 위해 동관음사에서 범당공양을 하고 돌아오다가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과양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 ② 꽃으로 환생했으나 또다시 과양생이 처에게 죽음을 당하여 구슬로 환생한다.
- ③ 구슬을 삼킨 과양생이 처의 몸을 빌어 3형제를 재생한다.
- ④ 장원급제하고 귀가한 3형제가 이유없이 죽는다.
- ⑤ 죽음의 이유를 알고자 김치원님은 강림을 저승으로 보낸다.
- ⑥ 조강지처의 도움으로 저승문 입구에 도달한다.
- ⑦ 염라대왕을 만나 자초지종을 전하고 죽음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염라대왕이 이승으로 오기로 한다.
- ⑧ 약속한 날 염라대왕이 와서 죄의 유무에 따라 죽게 되었음을 판결한다.

⑨ 강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염라대왕이 강림의 혼을 차사로 데리고 간다.

⑩ 강림이 차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차사본풀이가 강림의 차사가 되는 과정과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력담이라면, 위 부분은 ‘①~④ : 1단계, ⑤~⑧ : 2단계, ⑨~⑩ :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버무왕의 아들 3형제가 과양땅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환생과정을 거쳐 다시 과양땅 과양생이 3형제로 재생하여 돌연사하는 내용이다. 이는 강림이 등장하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인간이 사는 속의 세계는 과양땅이고 거기에는 과양생이라는 성격이 포악하고 사악한 인간이 있는데, 그 부인의 몸을 빌어 태어난 3형제가 돌연사 한다. 즉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 왜 죽은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 신화를 듣는 청자도 그 연유를 알 수 없다. 1단계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죽음은 어디서 언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는 강림차사에 관한 내용이다. 인간세계에서 죽음의 이유를 모르니 통치자에게 하소연을 하나 통치자 역시 알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저승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다. 이에 김치원님은 아내를 18명씩이나 거느리고 사는 영웅적 면모의 강림을 시켜 염라대왕을 불러다가 해결하려 한다. 이승의 통치자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하지 않고 이승의 통치자는 가만히 있고 중간자인 강림이를 시켜 염라대왕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의 통치자 중심의 사고의 표현으로 이는 곧 현실 중심의 사고 방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승과 저승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는 신화적 세계요, 타계관념이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림이 걸어서 저승을 다녀오는 것으로 보아 타계는 수직관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평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염라대왕은 강림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지상으로 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약속한 날 이승에 온 염라대왕은 먼저 과양생이 처를 데려오도록 하여

자초지종을 듣는다. 자신이 구슬을 삼켜 임신을 하고 3형제를 낳아 길렀고, 그 3형제가 과거급제를 한 후 죽어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고 토롱해 두었다고 한다.¹⁴⁾ 염라대왕은 토롱한 것을 파 보도록 하니 거기에는 3형제의 시신이 아니라 허수아비 3개가 있었다. 주천강연못의 물을 퍼내고 보니 거기에는 3형제의 시신이 뼈만 남아 있었다. 버드나무로 3번 치니 뼈에 살이 돋고, 피가 돌고 숨을 쉬며 살아났다. 이러한 염라대왕의 행위는 과양생이 처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3형제 이전에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대가로 과양생이 처에게 죽음 내린다. 그의 시신은 빵아서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자 모기, 각다귀 등이 되었다.

여기서 죽음의 문제는 죄의 유무가 가장 큰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죽은 자는 동경국 버무왕 3형제, 과양생 처의 아들 3형제, 과양생이 처이다. 동경국 버무왕 3형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과양생이 처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살인의 죄는 과양생이 처에게 있다. 그런데 직접 과양생이 처에게 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행운이라 할 수 있는 아들 3형제를 낳게 한다. 그 아들 3형제가 이승에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이를 때 그들은 죽는다. 이것은 행복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행의 농도가 짙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승에서 과거급제는 최고의 행복인데 행복의 정점에 도달하자 허무하게 돌연사를 했으니 얼마나 큰 불행인가. 아들 3형제로서는 가장 큰 불행이다. 하지만 아들 3형제는 과거급제가 자신들에게 최고의 행복인지 불행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과양생이 처는 그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깨닫는다. 과거급제를 한 세 자식을 보자 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행복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3형제가 문전제를 지내며 절을 한 후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것은 불행이자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불행에 대한 표현이다. 행복인지 불행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3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과양생이 처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이승에서 죄는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4) 제주도 토롱에 대해서는 고정하,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연구”(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본인이 겪어야 하는데, 본인이 겪는 아픔보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더 큰 아픔을 부모에게 지워주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 민간에서도 어떤 일이 잘못되면 ‘동티난다’라고 한다. 이는 민간에서 판단하기로 공공의 가치관에 어긋나면 잘못된 일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말한다. 동티가 나면, 그것은 자신이 아프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거나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쳤을 때 그 고통은 더 큰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값이 자신에게 닥친다면 혼자서 그것을 감내하겠지만 자신을 멸절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더 큰 충격과 아픔이다. 이러한 이승의 죄에 대한 판결을 염라대왕은 과양생이 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2단계의 내용은 평화로운 이승에서 갑작스런 인간의 죽음은 어떤 이유에서든 죄를 저질렀기에 나타난 결과이며 그 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저승 염라대왕이 와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단계는 매번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염라대왕이 이승에 자주 올 수 없으니 똑똑하고 역력한 강림이를 빌려달라는 염라대왕의 제안을 통해 강림의 능력을 보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차사본풀이는 크게 3단계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림의 내력담을 말하고 있다.

- ① 인간은 죽는다.
- ② 그 연유는 악을 저지른 죄의 대가이다.
- ③ 강림이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요소와 차사본풀이가 유교식 상례 절차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해명은 반 겐넵의 통과의례에 따른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의례가 있는데 이를 통과의례라 한다. 통과의례는 ‘출생의례, 성인식, 혼례, 상례’라는 4단계를 거친다. 상례는 죽은

영혼이 저세상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의례이다. 저세상은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동양에서 말하는 저승일 수도 있다. 동양의 타계관에서 한국의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데, 반 개념이 말하는 통과의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양적 의례 관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는 저승에 가 있는 조상을 제사 때에는 불러 대접하고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기를 玄孫까지 하므로 4대봉사라 한다. 즉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상례 때에도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의를 행하는데, 보통 3년상을 치른다. 그 절차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중-초혼-염습-성복제-일포제-발인-노전제-토신제-하관제-성분-초우제-재우제-삼우제-졸곡제-삭망제-소상-대상-담제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이를 반 개념의 통과의례 분류에 맞게 분류하면, 3단계로 나뉜다.

분리의례는 임중~염습(~입관), 과도의례는 성복제~대상, 가입의례는 담제 이후로 나눌 수 있다.¹⁵⁾

분리의례는 다시 3단계로 구분되는데 분리기는 임중을, 과도기는 초혼에서 염습까지이고, 가입기는 입관이다. 이 단계는 생자와 사자가 생의 영역에서 사의 영역으로의 분리를 의미한다.

성복제를 치르고서 대상까지는 과도의례이다. 성복제를 치를 때 상제는 상복으로 갈아 입는데, 이는 인격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보통 인간과는 달리 죽은 조상인 망인의 영혼과 조문객 사이에서 마치 사제자처럼 중재하는 인물이다. 제의를 행할 때, 신부, 목사, 스님 등이 제의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게다가 성복부터 대

15) 현승환, “濟州島 喪·祭禮의 節次의 信仰的 의미”, 『탐라문화』 제17호 탐라문화연구소, 1997. pp.172-182.

상까지 3년상을 치르는데 이처럼 긴 기간동안 과도의례 과정을 지낸다. 여기에는 2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시신을 공경하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시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전자인 공경하는 관점은 조상신으로 대접하여 함부로 시신을 다루지 않고 공경심을 갖고 엄숙하게 다루어 의례를 행하는 것이고, 후자인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는 시신을 두려워하여 공손하게 다루지 않으면 해꼬지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히 다루고 제의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함부로 어느쪽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가지 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 제주도민에게는 조상신이 들리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어 매장하고 돌아와 귀양풀이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에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그 사람으로 인격전환을 하여 말을 한다. 억울하게 죽었다거나, 빛이 있는데 갓지 못해서 미안하다거나 소원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등 나름대로의 한스러움을 말한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드는데 깨고 나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제주도민들은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았을 경우 들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를 무서워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의를 드린다.

상례절차는 이러한 의식의 표현이다. 조상신은 바로 내 부모요, 조부모이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공경하고, 조심하며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정성을 중요시한다. 또 인간이 사고하는 틀 속에서 조상신의 머무는 세상도 생각해 내고 거기로 가는 방법까지 추정해 낸다. 이러한 방법은 반 켄넵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행하는 상장례 절차를 반켄넵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리의례			과도의례			가입의례
분리	과도	가입	분리	과도	가입	
임종	초혼- 염습	입관	성복- 일포	발인- 하관전	하관- 대상	답제

이러한 의례 절차는 주자가례를 모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민간신앙으로서의 장례법을 결합하여 사례편람에 기술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 왔다. 저승차사를 따로 차리는 것이 바로 민간신앙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상장례 절차의 신앙적 의미는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진다.¹⁶⁾

첫째, 상례의 절차는 본래 신앙적 차원의 것으로 이승에서 인간이 생활하듯이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나름대로 생활한다는 신앙의 상징적 표현이던 것이 윤리적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그 절차를 구분한 것이다.

둘째,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합일로 되어 있다는 인간관이 있으며, 영혼은 저승에 도달하기 전, 곧 불안정기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잘 모시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저승에 도달한 후는 안정기로 이 때부터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즉 조상이 되어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는다.

셋째, 의례의 절차는 고인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데 분리, 과도, 가입의례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제의 후에 상제와 망자, 상제와 생자가 식사를 같이 하는 神人供食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승과 이승이 상제를 통해 교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생사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는 부정한 장소, 喪期는 부정한 기간이요, 생자와 망자를 중개하는 상제, 복친은 부정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망자의 영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는 빙의현상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령이 저승에 안착하지 못하면 잡귀가 되어 떠돌다가 빙의하여 재앙을 준다는 관념에 있다.

넷째, 의례는 무속식과 유교식이 공존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16) 현승환, 앞의 책, pp.184-186.

의식절차가 아닌 사제자인 심방에 의해 신과 인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유교식 제의는 <망인(조상)-상제-생자(친지)>의 관계로 상제가 사제자의 역할을 하며, 무속식 제의는 <망인(조상신)-심방-생자(친지-단골)>의 관계로 심방이 사제자의 역할을 한다. 즉 유교식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조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숭배하는데, 무속식은 심방이 모셔야 할 신과 단골의 관계로 조상을 여타의 신과 같이 잘 모시면 복을 주고, 잘 안 모시면 재앙을 준다고 관념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저승은 저승에 안착해야 善神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고 여행 중인 경우는 불안정기에 있으므로 잘 모셔야 한다. 특히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죽어 헤매는 영혼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조상은 영혼이면서 혼백이기도 하지만 잡귀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은 4대 봉사를 강화시키고 사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V. 결 론

지금까지 <차사본풀이> 7편의 이본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신화와 의례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지리학적 방법으로 <차사본풀이>의 원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사인>을 기본 텍스트로 선정하여 이를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24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눈 다음, 이 단락들을 중심으로 이본들을 비교하여 각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단락 21개를 추출하였다. 이 기본단락과 일치하는 서사 구조를 지닌 것이 원형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차사본풀이>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순차적 방법에 의해 <차사본풀이>를 단락별로 나눈 바,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전반부는 이승에서 벌어지는 사악한 일과, 그로 인한 죄값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속의 세계의 사건을 서술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생사의 자연현상을 지상의 강림이 해결해 준 내력담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차사본풀이의 중심 내용이다.

전반부는 동경국 3형제의 성속(聖俗)의 공간이동을 통해 악(惡)의 세계로 표상되는 과양땅에서의 1차 죽음과 꽃으로의 환생, 다시 과양땅에서 과양생이 3형제로 출생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2차 출생과 죽음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후반부는 강림의 저승 여행을 통해 과양땅에 오게 된 염라대왕은 지상의 악(과양생이 처를 죽이고 모기와 각다귀로 환생시킴)을 응징하고, 이승의 자연질서(삶과 죽음)와 인문질서(죄와 벌)를 바로 잡는 역할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 분리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생사의 문제는 염라대왕의 뜻에 따른다는 정명관을 보여주고, 아울러 염라대왕이 자기 대신 강림을 이승에 보냄으로써 그가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차사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강림의 저승 여행 과정에서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을 받아 저승길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 현재 제주도민의 신앙관념이 유일신 관념이 아니라 다신교적 애니미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계(他界)를 걷고 또 걸어 연못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평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주천강연못 주위에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승민들에게 이승에서 조상제사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3. <차사본풀이>와 상례(喪禮)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신화와 의례에 대한 연구 성과로 신화선행설과 의례선행설을 살피고, 제주도 상례 절차와 <차사본풀이>의 관계를 들어 신화와 의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상례 절차는 망인의 영혼이 상제의 도움을 받으며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의례적 표현이었고, 차사본풀이는 그러한 의례를 담당하는 차사인 강림이 저승 염라왕을 대신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래담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신화와 의례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상례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 셈이다.

참고문헌

<자료>

-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新韓書林, 1937.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집문당, 2001.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단행본>

- 김무조, 『韓國神話의 原型』, 정음문화사, 1989.
- 김승혜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여러 종교에서 본 죽음의 문제』, 도서출판窓, 1992.
- 김열규 외, 『民譚形態論-전과주의에서 구조주의까지-』, 일조각, 1982.
- 김태곤, 『韓國民間信仰研究』, 집문당, 1983.
- _____,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구조분석의 이론과 실천』, 성바오로출판사, 1989.
- 왕 빈, 『神話學入門』, 금란출판사, 1980.
- 이인제 외, 『현대소설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천재교육, 1995.
- 장덕순, 『說話文學概說』, 삼우사, 1976.
- 장주근, 『제주의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출판사, 2001.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 최운식, 『韓國說話研究』, 집문당, 1991.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_____,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_____,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 大林太良·권태호 외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 A. 반 계넵·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논문>

-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고정하,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나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권우행, “한국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죽음인식의 변이양상”, 『동남어문』 제11집, 동남어문학회, 2000.
- 김향숙, “韓國禁忌 Motif 受容說話 考察”,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화경, “차사 본풀이 구조의 분석”, 『인문연구』 1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김현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세계의 여신신화』, 종교문제연구소 제12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 박경신, “제주도 무속 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호, 국어국문학회, 1986.
- 신월균, “巫俗神話에서의 聖俗인식”, 『비교민속학』 12집, 비교민속학회, 1996.
- 양인석, “『差使本풀이』의 構造分析을 통한 主題意識”, 『탐라문화』 창간호, 탐라민속문화연구회, 1980.
- 오선근, “他界旅行 모티프의 變異樣相研究 (I)”, 『한국문예비평연구』 2호, 한국현대문

예비평학회, 1998.

정재민, “延命說話의 변이양상과 운명의식”, 『구비문학연구』 3집, 구비문학회, 1996.

주강현, “韓國巫俗의 世界觀”, 『인문학연구』 8권, 한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최영숙,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현원필, “文學教科에서의 敍事巫歌 指導 研究-濟州 敍事巫歌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_____, “濟州島 喪·葬禮의 節次와 信仰的 意味”, 『탐라문화』 제17집, 탐라문화연구소, 1997.

<Abstract>

A Study on <CHASA-BONPURI>

Jang, Hee-chol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whan

The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Jeju people define through folklore the explanation about the ritual process not about BONPURI as literature. To reach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ly I analyzed <CHASA-BONPURI> as literature. I presumed the original form from many different versions which were collected so far. Then I analyzed the structure of <CHASA-BONPURI>. I considered the meaning in connection with funeral rites.

I presumed the original form of <CHASA-BONPURI>, comparing with 7 versions of material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based on 'Ahn, Sa-in'. It was found that 7 different versions have 19 paragraphs in common. However I drew 21 paragraphs, which contain 2 more paragraphs because two paragraphs('s' and 't')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tory. I assumed that the paragraph whose narrative structure fits in with those 21 basic paragraphs was most close to the original form.

I divided <CHASA-BONPURI> into each paragraph with gradual method. Then I could classified it as two step - the first half and the latter half which consisted the story. The first half part described a story about mundane event that is related to

evil things and death as a punishment for it. I can say that the subject matter of <CHASA-BONPURI> was found in the latter half part, because it suggested a clue that Kang-rim dealt with all matters of life and death in this world.

In the first half part, 3 brothers from Dongkyung-Country moved to this holy world and run into the first death and rebirth as flowers in Gwayang-Land, the place of evil. They were born again as 3 children of parents named Gwayangsaengi and met the second death.

In the latter half part, the king of Hades who came with Kang-rim's help punished the evil (He killed woman and made her born again as a mosquito and a striped mosquito each) on the earth and set up the order of nature (life and death) and human being (sin and punishment). He also showed the principle of body and soul separation. I could find fatalism in this part which meant all matters of life and death were decided only by the king. In addition, the king of Hades sent Kang-rim to this world to show him as a CHASA who controled all matters of life and death in human beings.

I confirmed the relation between myths and rites from the one between the procedure of funeral rites and <CHASA-BONPURI>. As a result of that, the procedure of funeral rites of Jeju was a ritual expression that showed that the soul of a dead person left him with the chief mourner's help. <CHASA-BONPURI> had a story that CHASA who took care of the rites had the right to control all matters of life and death instead of the king of Hades. Therefore it has no direct relation between myths and rites, and it means the myths weren't formed to explain the funeral rit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